

한국언어정보학회
Korean Society for Language and Information
소식 제 23 호 (1999년 10월)
KSLI Newsletter No 23, 1999

발행인: 최재웅

편집인: 김종복

발행처: 한국언어정보학회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영어영문학과내

전화: 02-961-0892/0211 전송: 02-959-9018

E-mail: jongbok@nms.kyunghee.ac.kr, URL: <http://society.kordic.re.kr/~ksli/>

㉔ 회비 납부 부탁 말씀

안녕하십니까? 학술진흥재단에 학회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학진측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특히 회비 회원확보가 절대적인 조건으로 되어있는 듯 합니다. 즉, 적정선의 학회회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였다는 증빙서류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회의 회원 회비 납부 실적이 저조한 편으로 준비에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아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여러분께서는 금년회비를 납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99년도 학회 연회비는 정회원 20,000원, 준회원 5,000원입니다. 그리고 금번 학기부터 평생회비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평생회비는 200,000원입니다. 평생회비제도는 학회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많은 호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회비는 발표회 모임에서 직접 내시든지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한국언어정보학회(김종복), 계좌번호: 012336-0071907, 경희대 서울 우체국).

㉔ 구구조문범연구회

이번 학기는 Introduction to HPSG를 목적으로 강독을 결정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언어정보학회 정기 월례발표회가 있는 날 오후 2:30-5:00에 대우재단에서 있으며 강독교재는 Syntactic Theory: A Fomal Introduction, Sag & Wasow(1999)와 Sag and Webelhuth의 LSA 강의 Package입니다.

㉔ 회원소식

◆취임:

- 유은정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류병래 선생님께서 충남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출판

- 경희대 김종복교수님께서 The Grammar of Negation: A Constraint-Based Grammar를 CSLI출판사에서 출판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㉔ 회원주소록 정정 및 주소록 배포

새로운 주소록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미진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들을 수정, 보완하여 다음에는 더욱 충실한 주소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가 사항이나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leri@nms.kyunghee.ac.kr이나 전화 961-0211로 연락주시시오.

㉮ PACLIC14 2차 논문 모집 공고: 일정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e Logico-Linguistic Society of Japan is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14th Pacific Asia Conference on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 (PACLIC 14) will be held at Waseda University in Tokyo, Japan, on February 15-17, 2000. The Conference is an annual meeting of scholars with a wide range of interest in theoretical and computational linguistics from the Pacific Asia region. PACLIC 14 solicits papers treating any field in theoretical and computational linguistic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yntax, morphology, phonology, semantics, pragmatics, discourse analysis, typology, corpus linguistics, formal grammar theory,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computer applications. Submission may be made either for a long paper or a short paper. The long paper should not exceed 20 letter- or A4-sized pages, with font size 11 point, double spaced throughout. The maximum length for the short paper is 2000 words. The first page of the submitted paper should bear the following information: the title of the paper, the name(s) of the author(s), affiliations, mailing address, and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E-mail submission is also acceptable (but no fax submissions). Accepted papers will be published in the Conference Proceedings. The submission should be sent to either of the following addresses.

MAILING ADDRESSES:

- * For Hard-Copy Submission: PACLIC14 c/o Akira Ikeya, Chiyogaoka 4-7-4, Asao-ku, Kawasaki 215-0005 JAPAN
- * For Electronic Submission: kawamori@atom.brl.ntt.co.jp

IMPORTANT DATES:

- Preliminary paper submission due: November 10, 1999 (Extended)
- Notification of acceptance: December 10, 1999 (Extended)
- Camera-ready copy due: January 15, 2000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Dr. Masahito KAWAMORI, NTT Research Laboratories, 3-1 Morinosato Wakamiya, Atsugi, Kanagawa, 243-0198 JAPAN
e-mail:kawamori@atom.brl.ntt.co.jp Phone :+81-462-40-3624 Fax:+81-462-40-4705

㉮ 국내외 언어학 동향

편집자 주: 이번 호에는 국내·외 학술 동향은 남 승호 선생님의 글을 실었습니다.

제2차 인지과학국제학술대회와 ESSLLI-99

여러 회원님들께 제가 지난 여름 참석했던 두 개의 학회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있었던 <제2차 인지과학 국제학술대회>이고, 둘째는 8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네덜란드 Utrecht 대학에서 있었던 <제11회 European Summer School in Logic, Language, and Information>입니다.

먼저 인지과학 학술대회는 제작년 1997년 8월 서울에서 한국인지과학회 주최로 처음 시작되어 격년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국제학술대회입니다. 제작년의 제1차 대회도 성공적이었지만 이번 대회에서도 국제학술대회답게 많은 나라의 학자들이 참가하였다. 세계 여러지역에서 초청된 학자들 10명(이정민 교수(서울대) 포함) 초청강연을 하였다. 72편의 심사를 거친 논문이 구술발표되었고, 206편의 논문이 Poster로 발표되었다. 또한 두 번의 심포지움이 <Trends in Comparative Cognitive Science>와 <Nature of Human Concepts and Categories>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Cognitive Re-definition of Literature>라는 주제로

워크샵이 있었다. 참가 인원도 총 400명을 넘었고, 외국에서도 100명 가까이 참석하였다. 한국에서는 한국인지과학회 이정모 회장등 20여명이 참가하였는데, 서울대 이정민 교수 연구팀(대학원생 3명포함)이 한국어술어 의미기술에 관한 연구논문을 세 편 발표하였다.

특히 주목하게 된 사실은 일본은 이미 두터운 기존 학자층을 기반으로 학제간 협동연구의 영역(언어학/심리학/인공지능/언어처리/철학/신경과학/생물학 등)이 대학에서 구조적으로 잘 수용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동경대학에서도 전자공학과가 정보공학과(dept. of Information Engineering)로 개칭되었으며, 나고야대학에서는 대학원에 Graduate School of Human Informatics가 설치되어 언어학, 전자공학, 인공지능, 심리학 분야 학자들이 함께 포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보학(informatics)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후년 2001년에는 8월 하순경 중국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3년에는 호주 인지과학회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앞으로 인지과학의 아시아권 협력연구를 위한 좋은 틀이 마련되었으니, 한국의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8월 중순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ESSLII는 매년 열리는 큰 행사로서, 작년에는 독일의 Saarbuecken 대학에서 열렸었고, 이제까지 유럽의 여러 도시를 돌면서 개최되었다. 금년도 많은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지에서 500여명의 학생/학자들이 참가하였다. 언어학, 논리학, 정보학 분야의 60여개 과목이 제공되는데, 이 중에는 Foundational, Introductory, Advanced, Workshop courses들로 나누어 진행하며, 각 과목은 한주일(5일)이나, 두주일(10일) 과정으로 되어있다. 특히 언어학/논리학/정보학의 연계과목들이 반이상이나 차지하고 있어서 서로 다른 분야를 이해하는데 큰 다리역할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연구진작을 위한 Student Conference가 있으며, 10여개의 워크샵을 통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다음과 같은 언어학 관련 과목들이 개설되었다.

◇Keenan <Mathematical Structures in Language>, ◇Krifka/Bartels <Intonation and Interpretation>, ◇Buering <The Syntax and Semantics of Binding Theory>, ◇de Hoop <Optimality Thoery>, ◇Gil <Quantification and Linguistic Typology>, ◇Hardt <Ellipsis>, ◇Jacobson <Surface Compositionality and Variable-Free Semantics>, ◇Reinhart <Anaphora Resolution>, ◇Geurts <Focus and Presupposition in Muti-Speaker Discourse>, ◇Kordini <Lexical Semantics and Linking in Constraint-Based Theories>, ◇Moortgat/Oehrle <Grammatical Resources: Logic, Structure, Control>, ◇Hendriks <Grammar and Interpretation of Information Structure>, ◇de Swart/Verkuyl <Tense and Aspect in Sentence and Discourse>, ◇Winter <Topics in the formal semantics of the Noun Phrase>, ◇Kracht <Referent systems, Argument structure and syntax>, ◇Merin <Bayesian Pragmatics and Semantics>, ◇Moltman <Secondary Objects and Nonreferential Complements>, ◇Orilia <Foundations of Intensional Logic and Natural Language Semantics>, ◇Retore/Stabler <Resource Logics and Minimalist Grammar>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네 번의 저녁강의 (E. Hajicova, J. van Benthem, S. Artemov, P. Suppes)가 있었다. 이번 ESSLII-99에서 사용되었던 강의자료들을 지난번 언어정보학회에서 복사신청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더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모임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0월 16일 발표자 논문 초록

범주문법, 의미해석, 격

강범모 (고려대학교)

범주문법은 통사적 결합과 의미적 해석이 밀접하게 연관된 문법 이론이다. 그것은 통사적 함수, 논항과 의미적 함수, 논항이 대응됨에 기반을 두고 있다. 통사적 표현을 통사적

함수와 논항으로, 그리고 의미를 의미적 함수와 논항으로 간주함에 따라 함수와 논항의 결합은 단순한 함수합성(functional application)과 아울러 함수합성(functional composition), 인상(lifting)의 여러 가지 기제를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 본 발표에서는 일반범주문법의 관점에서 한국어의 사동, 인상 구문과 관련된 현상을 의미해석과 격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휘적 사동사에서 사동접사는 TV\VP 범주인데, 이것이 ‘먹’과 같은 타동사와 함수합성에 의해 결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egin{array}{c}
 \text{먹} \quad + \quad \text{이} \\
 \text{VP}\backslash\text{NP} \quad \text{TV}\backslash\text{VP} \\
 \text{-----FC} \\
 \text{TV}\backslash\text{NP} \\
 \text{a. 먹-} \Rightarrow \lambda z \lambda s [\text{eat}'(z)(s)] \\
 \text{b. 먹이-} \Rightarrow \lambda z [\lambda x \lambda y \exists P [P(y) \text{ CAUSE eat}'(z)(x)]]
 \end{array}$$

이러한 분석은 사동 의미를 명확히 표현해 줄뿐만 아니라 ‘먹’의 의미적 주어 논항의 격이 주격으로 실현되지 않는 것을 잘 보여준다. 단, ‘정수가 명희에게/명희를 사과를 먹었다’에서 보는 것처럼 격 교체가 가능한데 이것을 당연격의 설정 및 수의적인 TTV 격명세 규칙의 설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TTV 격명세 규칙 (수의적)
 $(\text{VP}\backslash\text{NP})\backslash\text{NP} \Rightarrow (\text{VP}\backslash\text{NP}[\text{dat}])\backslash\text{NP}$

둘째, 통사적 사역 구문에서도 유사한 분석이 가능하다. 단, 통사적 사역 구문에 나타나는 ‘하’는 어휘적 사역 형태소와 같은 TV\VP 범주가 아니라 VP\S 범주로 파악한다. ‘정수가 명희가 떠나게 하였다’와 ‘정수가 명희를 떠나게 하였다’가 관련된 것으로 분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에서 ‘먹게 하’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begin{array}{c}
 \text{먹} \quad \quad \quad \text{-게} \quad \quad \quad \text{하-} \\
 \text{S}\backslash\text{NP}\backslash\text{NP} \quad \text{S}[\text{Comp} \text{ 게}]\backslash\text{S} \quad \text{VP}\backslash\text{S}[\text{Comp} \text{ 게}] \\
 \text{-----FC} \\
 \text{S}[\text{Comp} \text{ 게}]\backslash\text{NP}\backslash\text{NP} \\
 \text{-----FC} \\
 \text{VP}\backslash\text{NP}\backslash\text{NP}
 \end{array}$$

단, 어휘적 사동사의 경우와는 달리 ‘정수가 명희에게 떠나게 하였다’와 같은 TV에서의 여격 구문이 가능한데, 이것은 동일명사구삭제(Equi) 구문으로 별도로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인상구문도 함수합성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begin{array}{c}
 \text{정수가 명희를 병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
 \text{NP} \quad \text{NP} \quad \text{NP} \quad \text{S}[\text{고}]\backslash\text{NP}\backslash\text{NP} \quad \text{VP}\backslash\text{S}[\text{고}] \\
 \text{-----FC} \\
 \text{VP}\backslash\text{NP}\backslash\text{NP}
 \end{array}$$

단, 이때 여격 구문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은 사역 구문에서의 여격 교체가 ‘영향받음’

과 같은 의미적 특성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상구문에서는 ‘고유특성’과 같은 다른 의미적 제약이 있는데, 이것은 이중주격 구문에서의 유사한 의미적 제약과 일맥상통한다.

“아무도/아무라도/아무나”의 분포와 의미’

발표자: 이정민(서울대), 정대호(한양대), 남승호(서울대)

이 논문은 “아무-”와 함께 형성되는 (부정)극어의 분포와 의미를 다룬다.

(I) 먼저 “아무-도/라도/나”의 분포를 다음과 같은 다양한 맥락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긍정, 부정, -기전에, 조건절, 진칭양화사구, 비교구문, 의문문, 양상, 미래, 명령문, 습관구문, 총칭, 부정함축술어, 없다/모르다, 다행이다/기쁘다. 이러한 분포조사 결과를 의미론적으로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다 (잠정적): (i) “아무-N-도”는 반진실성(anti-verdical) 구문에, (ii) “아무-N-라도”는 비진실성(non-veridical) 구문에, (iii) “아무-N-나”는 진실성(veridical)/비진실성 구문에 나타난다. 진실성과 관련된 개념들은 Giannakidou (1998)에서 취하여 확대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아무도”와 “아무라도/아무나”가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II) 또한 “아무-”계열 (부정)극어의 의미를 분석하여, 소위 “전칭적/존재적” 양화 의미 발생과 분포제약을 설명한다. 제안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 (i) 형태소 “아무-”는 임의선택(arbitrary choice)이라는 양화 의미를 갖는다.
- (ii) 형태소 “-도/(이)라도/(이)나”는 양보(concession)의 의미를 갖는다.
- (iii) 이들 두 형태소의 결합이 화용론적 척도(scale)를 강하게 유발하는 맥락에서는 전칭적 양화를, 그렇지 않을 때는 존재적 양화를 발생시킨다.
- (iv) “아무-”계열 극어의 분포는 해당구문의 의미 운용소(operator)와 “임의선택”의 양화사 사이의 영향권 관계/제약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어 영형대명사와 센터링 이론(Zero Pronouns and Centering in Korean)

홍 민표 (명지대학교)

본고는 영어의 무강세 대명사화 그 담화응집 기능이 비슷하다고 알려진 한국어 영형대명사의 분포 및 기능과 관련하여 Grosz et.al. (1995)의 센터링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라디오 대담프로그램을 녹취 전사하여 분석한 자료의 통계적 결과를 살펴보고, 한국어 영형 대명사의 유형을 그 지시적 속성에 따라 분류한 후, 한국어 영형 대명사의 범주를 기언급표현에 대한 대응용법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대화체에서 빈번하게 영형대명사로 실현되는 화자와 청자를 지칭하는 경우는 센터링이론의 분석범위에서 제외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영형대명사의 특성에 관해 센터링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함에 있어, 장석진 (1984), 노용균(1991), 최재웅&이민행(1999) 등의 기존연구를 개관하고, 전향적 센터의 순위 결정 상의 유의점, 전이유형의 분류, 구문구조가 센터확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언어정보학회

<1999학년도 제2학기 연구 발표 계획>

장소: 대우재단 빌딩 (서울역 앞 대우 빌딩 뒤) 세미나실

날짜	시간	발표자	논문제목	사회
9/18 (토)	기획 9:30-10:40	송 민영(고려대)	"A Sequence of Tense in Propositional Attitudes and its Semantics"	정소우 (성신여대)
	휴식 (10분)			
	일반 10:50-11:30	Ryuichi Washio (Tsukuba U., Japan)	"On the Status of Short-form Causatives in Modern Korean"	
	일반 11:30-12:10	이 예식(경북대)	"Additive Particle <i>-to</i> and Emphatic Expressions in Korean"	
10/16 (토)	일반 9:30-10:10	홍 민표(명지대)	"Zero Pronouns and Centering in Korean"	김용환 (양산대)
	일반 10:10-10:50	이정민(서울대) 정대호(한양대) 남승호(서울대)	"한국어 아무-도/-라도/-나의 분포와 의미"	
	휴식 (10분)			
	일반 11:00-11:40	강 범모(고려대)	TBA	
11/20 (토)	일반 9:30-10:10	류 병래(충남대)	"하다" 구문의 말뭉치 언어학적 분석과 한영 기계 번역에의 응용"	문승철 (항공대)
	일반 10:10-10:50	이 정민(서울대)	TBA	
	일반 11:00-11:40	김 중복(경희대)	"Interfaces between Morphology and Syntax in Nominalization Constructions"	
12/18 (토)	일반 9:30-10:10	최 규련(연세대)	TBA	곽은주 (세종대)
	일반 10:10-10:50	이 기용(고려대)	"테이터베이스 의미론에 의한 한국어 시제 표현의 분석"	
	일반 11:00-11:40	김 용범(광운대)	"On Different Kinds of Focus"	

한국언어정보학회 구구조문법연구회

<1999학년도 제2학기 강독 계획>

장소: 대우재단 빌딩 (서울역 앞 대우 빌딩 뒤) 세미나실

- ◆ 강독교재 : 1) Sag & Wasow. 1999. *Syntactic Theory: A Formal Introduction*. CSLI Publications
 2) Webelhuth and Sag의 1999년 LSA Summer Institute Course Package

날 짜	시 간	발 표 자	강 독 내 용
9월 18일 (토)	14:30-17:00	김중복(경희대) 채희락(한국외대)	Morphology in HPSG: The structure of the Lexicon (S&W Ch.8)
10월16일 (토)	14:30-17:00	조세연(호남대) 이민행(연세대)	Syntax in HPSG I: UDC in HPSG Satisfying Constraints on Extraction and Adjunction (Bouma et al. 1999)
11월20일 (토)	14:30-17:00	정 찬(동서대) 유은정(서울대)	Syntax in HPSG II: Constructions in HPSG Ginzberg & Sag (1999), Ch 6 & 7
12월18일 (토)	14:30-17:00	류병래(충남대) 이해윤(서울대)	Semantics in HPSG: (S&W Ch.8)

